

남·여 대학생의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선생님과 학생역할을 중심으로-

한 명 숙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Stereotype of Hair Style, Shoes and Ornaments Manifested by University Student

Myung-Sook Ha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2004. 3. 26. 접수)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tereotype in a society toward the roles of teachers and students affects their hair styles and ornaments and defines it through the cultural tag, "like". A survey of 362 male and female students in colleg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s was conducted. The data analysis was done by SPSS 10.0 and the difference of sample means between the groups in addition to basic statistics was evaluated. The t-test was made to 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air styles, shoes and ornaments that are recognized as appropriate for the roles of male students are short cut and black hair, sneakers and necktie. In that case of female students, medium and long hair style, black and brown hair, Loafer, hairpin and hairband are recognized properly. The hair styles, shoes and ornaments that are recognized as appropriate for the roles of male teachers are short cut and black hair, oxfords and necktie. In that case of female teachers, cut, medium, long, permanent and up style, black and brown hair, pumps, necklace, ring, earring, bracelet, hairpin, hairband, scarf and muffler are recognized appropriately. Second, the stereotype of male students and teachers's roles was more traditional, normative, and limited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and teachers's. The role of female teachers showed more generous than that of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and male teachers.

Key words: Like, Hair styles, Ornaments, Stereotype; ~답다, 두발 형태, 장신구류, 고정관념

I. 서 론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엮어가는 인간관계에 근거를 두고 교육이상을 실현하는 곳(박종렬, 1989)으로써 교육현장 내에서의 건강한 인간관계 또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한 요인(이인혜, 1997)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남·여 대학생들은 '선생님답다'와 '학생답다'에서 연상되는 어휘로 정숙성과 관계있는 '단정하다'와

'깔끔하다'를 가장 많이 표현(한명숙, 2004)하였으며, 이런 사회적 신분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신분, 즉 직업적 지위를 나타내는 복식으로 는 법관, 의사, 종교인, 요리사, 경찰관처럼 명백하게 제시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복은 전문적 능력과 지위 및 실제업무에 따라 모호하게 암시된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복식을 선택해서 입었다면 그 복식은 반드시 사회적 신호를 전달하게 되

며, 복식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이 생활하는 문화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나 태도에 대해 매우 분명하거나 또는 암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Rawson(1984)은 장식을 통해 상징적인 내용들이 전달되는데, 장식의 소재들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징적인 언어의 요소로 사용된다고 하였고, Arnheim(1989)은 '장식은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 축구선수와 교수를 구별해주며, 카테일파티와 이사회를 구분시켜준다'고 하였다. 또한 Feldon(2003)은 똑같은 민소매의 심플하고 짧은 시스 드레스를 입더라도 적당한 맞춤새에 클래식한 펌프스를 신고 진주 목걸이를 걸쳤을 때와 굉장히 타이트한 맞춤새에 그블 스타킹, 스파이크 힐을 신었을 때, 그 의복이 전하는 메시지는 서로 매우 다르다고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생활양식의 다양화와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 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 등으로 인하여 자기주장과 자기표현이 강해졌으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좀 더 자유롭고 솔직하며 개방적이다. 이들에게는 비언어적 의사표현 수단인 의모가 특히 중요시되고 있으며, 착장한 의복, 두발형태, 신발, 장신구 등이 상대방 평가의 주요 단서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화되며,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제한된 가치를 갖게 된다.

만약, 복식의 상징과 다른 특징들 사이에 불일치가 느껴지면, 그 결과는 보는 이에게 의혹과 불신을 갖게 하고, 의복에 잘못 조합된 신발과 장신구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착용자에 대한 낮은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직업적 지위에 따른 착용자의 호오적·평가적 차원을 높이고 긍정적인고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그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고정관념에 따라 간접적으로 승인되고 수용될 수 있는 의복 이외에 두발, 신발, 장신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생님과 학생의 긍정적인 이미지 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발, 신발, 그리고 장신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선생님과 학생에 대한 의복의 고정관념 연구(한명숙, 2004)에 이어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선생님에 대한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관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답다'라는 언어적 요소를 통하여 알아보고,

'학생답다'와 '선생님답다'의 역할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의 차이와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집단간 고정관념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고정 관념

고정관념은 어떤 범주의 사람, 제도, 혹은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심상으로 이진환(1986)은 일단 형성되면 잘 변화되지 않는 신념 중의 하나라고 하였고, Hoffman과 Hurst(1990)는 고정관념이 사실에 대한 지각과정이라기보다는 합리화과정이라고 하였으며, 김지경(2002)은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의 내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형성된 후에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긍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집단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성(gender)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 것을 성 고정관념이라 하는데, 이 성역할은 한 문화 안에서 남·여를 구분시키는 특성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된 관념에 따라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으로서의 행동이나 태도를 말한다(Broverman & Vogel, 1972)고 하였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과 성에 따른 역할 구분은 사회적 활동 즉, 남·여에 대한 직업 역할 고정관념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 한명숙(2004)은 우리나라 남·여 대학생들이 '남학생답다'에서 연상되는 의미로 '단정하다', '깔끔하다',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등으로 평가하였고, '여학생답다'에서 연상되는 의미로는 '단정하다', '깔끔하다', '귀엽다', '발랄하다', '순수하다', '청순하다' 등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남선생님답다'에서 연상되는 의미로 '단정하다', '깔끔하다', '멋있다', '지적이다', '근엄하다' 등으로 표현하였고, '여선생님답다'에서 연상되는 의미로는 '단정하다', '깔끔하다', '지적이다', '우아하다', '차분하다', '정숙하다' 등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2. 두발, 신발, 장신구

장식은 무엇을 '치장한다'는 의미로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복식의 개념이 '입는다'에서 '치장한다'로 바뀌었고(김민

자, 1993), 이 '치장한다'는 개념으로의 변화는 표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서, 복식 착용 동기·중장식적 특성이 강화된 것(박선훈, 2002)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의복을 착용할 때, 다양한 품목 중에서 어떤 한가지나 그 이상을 선택해서 착용하게 되며, 어떤 종류의 것을 착용했느냐에 따라 착용자의 역할이나 지위, 가치, 개성 등이 나타나는데, 의복이 단독으로 인상을 결정하기 보다는 의복 이외의 변인과 조합된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Horn & Gurel, 1981). 복식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것을 착용했는가는 어떤 다른 면보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

Solomon과 Douglas(1985)는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에서 남성과 경쟁해야 하는 직장 여성은 능력이 있다는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여성적인 이미지는 감추며, 직업이미지를 반영하는 복식을 통해 자신감과 업무능력을 강화시킨다고 하였으며, Craik(1993/2002)는 여성을 위한 직장복의 경우,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비서 및 은행원 등 모든 직업의 여성들은 여성성도 남성성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교육받으며, 전문직 여성의 업무 복장은 여성스러움을 배제하지도 과장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의 대부분은 과장된 장식에 의해 전달되는 걸치레가 심한 복장을 혐오하여 간단하고 절제된 의복을 선택한다고 하였으며, 이런 복식의 동조성과 보수성은 존경과 신뢰를 암시한다고 하였다.

현대의 의복은 1990년대 이후 개인의 독창성이 중요시되면서 의복과의 코디네이션 및 장신구 등과 같은 장식적 요소 이외에 두발 형태도 각자의 개성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이 선택되고 있고(김희숙, 1993), 모발 염색도 유행하고 있는데(김명희, 2000), 이 두발 형태나 모발 색상에 의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나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한명숙, 하회정, 2003)고 하였다.

한명숙, 하회정(2003)은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차에 따른 두발과 신발, 장신구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구하였는데, 두발 형태 중 매우 짧은 커트는 남자답고, 긴 직모와 긴 웨이브는 남자답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짧은 커트, 단발 직모, 긴 직모, 긴 웨이브, 업스타일이 여자답고, 그 중에서 긴 직모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매우 짧은 커트는 여자답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모발 색상은 검정색과 갈색이 남자답다고 하였고, 검정색을 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검정색, 갈색, 와인, 퍼플, 레몬, 오렌지는 여자답다고 하였고,

갈색을 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신발 종류 중에서는 옥스퍼드가 남자답고, 펌프스와 샌들은 여자답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 장신구류 중에서 넥타이가 남자답고,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머리핀, 머리띠, 스카프, 머플러는 여자답다고 평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ash(1985)는 여성의 관리직 평가에서 의복, 헤어스타일, 화장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였다. 비관리직 외모단서는 긴 웨이브에 염색하고 리본이나 머리핀으로 장식한 형태이며, 관리직 외모단서는 짧고 단순한 두발 형태로 장식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Pancer와 Meindler(1978)은 긴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의 남자보다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는 여러 면에서 남성의 역할은 여성보다 더 좁게 제한되어 있다(Popenoe, 1977)고 하였다.

김양휴(1995)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은 긴 직모에 부분 염색한 스타일이고,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은 짧은 커트에 전체 염색한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도주연(1991)은 직모는 수수하고 자연스럽고 청순한 이미지를 주며, 웨이브는 촌스럽고 성숙한 이미지를 주며, 짧은 머리는 도시적이고 남성적이며, 단발머리는 촌스럽고 평범하며, 긴머리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영미(1998)는 네크라인 요인을 통제한 후 두발형태에 따라서 얼굴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긴 웨이브 스타일은 다른 두발형태에 비하여 개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고, 단발 직모와 긴 직모는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와 단정한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커트머리는 개성적인 이미지와 지적인 이미지에서 긍정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하주연(2002)은 여고생들이 방학 중에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로 염색머리(39.5%), 퍼머와 염색을 동시에(19.7%), 퍼머만 하겠다(14.9%)로 나타나 염색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았으며, 염색 색상은 갈색(24.7%), 오렌지(20.2%), 와인(17.8%), 노랑(9.6%)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두발 형태는 긴 웨이브에 전체 염색한 스타일, 짧은 레이어드, 긴 직모에 전체 염색한 스타일 순이며, 그 이유는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며, 청순한 여성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은 짧은 커트에 부분염색, 긴 머리를 어린아이처럼 양쪽으로 묶은 스타일, 짧은 커트에 염색을 하지 않은 스타일 순이었고, 그 이유는 지저분해보이고, 어린아이 같으며, 남자 같아서 어

올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두발의 형태와 모발의 색상은 외모를 나타내주는 일반적인 양상일 뿐만 아니라 의복과 마찬가지로 인상 형성의 중요한 단서가 되며,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상징적 역할을 하는 품목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발, 신발, 장신구 중에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있는 반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있었으며, 여러 면에서 남성 역할은 여성 역할보다 좀 더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남·여 대학생 집단간의 학생과 선생님 역할에 적합하다고 인지하는 두발, 신발, 장신구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2. ‘학생답다’와 ‘선생님답다’의 역할 성별에 따라 고정관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규명한다.

두 발	여	매우짧은커트	짧은커트	단발직모	긴직모	긴웨이브	업스타일
	남						
색 상	여						
	남	검정색 N1	갈색 5YR 1/4	와인색 5RP 3/8	보라색 5P 3/10	녹색 5G 3/8	파랑색 5PB 3/10
신 발	여						
	남	운동화	로퍼	펌프스	옥스퍼드	샌들	부츠
장 신 구	여						
	남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안경	선글라스
	여						
	남	머리핀	머리띠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그림 1> 두발, 신발, 장신구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 방법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연구목적에 맞도록 학생과 선생님에 대한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관념 차이를 ‘~답다’라는 언어적 요소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두발, 신발, 장신구 품목의 선정은 예비조사와 선행연구(김양휴, 1995; 도주연, 1991; 유현주, 임명주, 황영미, 2001; 이경순, 김희섭, 1997; 이영미, 1998; 켈러 코드네이션, 2001; 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하주연, 2002)를 통해 선별하였다.

두발은 외모의 주된 특징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하는 매우 짧은 커트, 짧은 커트, 단발 직모, 긴 직모, 긴 웨이브, 업스타일 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모발의 색상은 형태에 따라 제 느낌이 다르게 인지되므로 형태를 배제한 후, 인체에 의한 색상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7×3.5cm의 Color chart를 붙여 제시하였다. 색상은 검정색(N1), 갈색(5YR 1/4), 와인색(5RP 3/8), 보라색(5P 3/10), 녹색(5G 3/8), 파랑색(5B 3/8), 노랑색(5Y 7/14), 오렌지색(5RP 4/12)을 선택하였고, 색채 표기는 Albert H. Munsell의 색채표기법에 의해 기입하였다.

신발은 운동화, 펌프스, 샌들, 로퍼, 부츠까지 발을 감싸는 것 중에서 대표적 유형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장신구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머리핀, 머리띠, 안경, 선글라스,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의 기본 디자인을 선택한 후, 각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만 제시하여 다른 디테일한 부분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제시한 두발, 신발, 장신구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의미분척도는 선행연구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독립된 차원으로 간주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을 따로 측정하였으므로(Bem, 1974; Bem, 1977; 정진경, 1987; 정진경, 1990; 유은희, 2001), 본 연구에서도 ‘남선생님답다’와 ‘여선생님답다’, ‘남학생답다’와 ‘여학생답다’를 두 개의 분리된 차원으로 제시하여 ‘가장 ~답다’ 5점 ‘가장 ~답지 못하다’ 1점의 5점 척도로 각 문항을 평가하게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02년 4월 남·여 대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수정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5월~6월 실시되었고, 임의 표집에 의해 서울·경기 소재 대학교의 남·여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배부된 400부의 설문지 중에서 362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충분한 47부를 제외한 315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 10.0을 이용하여 집단간의 표본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고, 신뢰도 분석 및 t-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분포를 보면, 남자대학생 164명(52.1%), 여자대학생 151명(47.9%)으로 남학생이 좀 더 많았고,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22명(7.0%), 2학년 158명(50.2%), 3학년 102명(32.4%), 4학년 33명(10.5%)으로 2학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IV. 결과 및 논의

1.頭髮에 대한 학생과 선생님 역할 고정관념

두발 형태와 모발 색상에 대한 역할 고정관념의 차이를 t-검증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1>, <표 2>와 같이 ‘남학생답다’, ‘여학생답다’, ‘남선생님답다’, ‘여선생님답다’는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p < .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두발 형태로 ‘남학생답다’에 피험자 모두 매우 짧은 커트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고, 매우 짧은 커트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은 낮게 평가하였으며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가 더 낮았다. 이는 한명숙(2004)의 ‘남학생답다’에서 단정하다, 깔끔하다, 활발하다 등의 의미를 연상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여학생답다’에는 긴 직모와 단발 직모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단발 직모의 경우 남자대학생의 평가(4.24)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4.55)가 더 높았다. 긴 웨이브는 여자대학생이 비교적 낮게 평가(2.29)하였고 남자대학생은 중간 정도의 평가(3.00)를 하였다. 이는 도주연(1995), 이영미(1998)의 단발 직모와 긴 직모는 수수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준다는 결과와 한명숙(2004)의 여학생답다에서 연상되는 의미로 단정하다, 순수하다 등을 나타낸 결과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남선생님답다’에 매우 짧은 커트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여자대학생의 평가(4.47)가 남자대학생의 평가

<표 1> 두발 형태에 대한 남·여 대학생의 역할 고정관념

고정관념	내용	두발형태	남		여		t-value	고정관념	내용	두발형태	남		여		t-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학생답다	남학생답다	매우 짧은 커트	3.75	1.24	3.79	1.15	0.32	선생님답다	남학생님답다	매우 짧은 커트	4.19	1.12	4.47	0.86	2.53*
		짧은 커트	2.96	1.30	2.65	1.16	-2.19*			짧은 커트	3.51	1.21	3.30	1.36	-1.42
		단발 직모	2.34	1.12	1.83	0.93	-4.43***			단발 직모	2.38	1.17	1.87	1.07	-4.01***
		긴 직모	1.90	1.21	1.40	0.79	-4.40***			긴 직모	1.68	1.11	1.29	0.74	-3.71***
		긴 웨이브	1.61	1.00	1.26	0.75	-3.47***			긴 웨이브	1.71	1.21	1.23	0.70	-4.35***
		업스타일	2.72	1.31	2.15	1.19	-4.05***			업스타일	3.84	1.31	3.40	1.46	-2.83**
	여학생답다	매우 짧은 커트	2.34	1.17	2.51	1.07	1.28		여학생님답다	매우 짧은 커트	2.71	1.36	2.84	1.26	0.89
		짧은 커트	3.79	1.07	3.83	1.07	0.38			짧은 커트	4.15	0.99	4.42	0.79	2.65**
		단발 직모	4.24	0.91	4.55	0.76	3.18**			단발 직모	4.35	0.93	4.43	0.78	0.88
		긴 직모	4.34	1.11	4.52	0.82	1.65			긴 직모	4.57	0.81	4.49	0.79	-0.85
		긴 웨이브	3.00	1.44	2.29	1.42	-4.40***			긴 웨이브	4.15	0.95	4.10	1.00	-0.42
		업스타일	2.68	1.40	2.43	1.31	-1.63			업스타일	4.09	1.11	4.37	0.95	-2.40*

* $p < .05$, ** $p < .01$, *** $p < .001$

<표 2> 모발 색상에 대한 남·여 대학생의 역할 고정관념

고정관념	내용	모발 색상	남		여		t-value	고정관념	내용	모발 색상	남		여		t-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학생답다	남학생답다	검정색	4.36	0.87	4.43	0.81	0.78	선생님답다	남학생님답다	검정색	4.31	0.93	4.44	0.82	1.34
		갈색	3.40	1.28	3.68	1.04	2.15*			갈색	3.40	1.18	3.46	1.16	0.50
		와인색	1.76	1.08	1.41	0.75	-3.27***			와인색	1.91	1.11	1.75	1.00	-1.38
		보라색	1.65	1.03	1.26	0.61	-4.13***			보라색	1.83	1.04	1.49	0.78	-3.26***
		녹색	1.99	1.02	1.79	1.17	-1.60			녹색	1.84	0.99	1.45	0.90	0.90
		파랑색	2.40	1.28	2.15	1.39	-1.60			파랑색	2.15	1.24	1.74	1.24	1.24
		노랑색	2.25	1.20	2.08	1.31	-1.17			노랑색	1.88	1.15	1.49	0.95	0.95
		오렌지	2.20	1.17	2.03	1.19	-1.31			오렌지	1.93	1.07	1.63	0.99	0.99
		여학생답다	검정색	3.96	1.14	4.34	0.97			3.13**	여학생님답다	검정색	3.87	1.23	4.16
	갈색		3.53	1.24	3.70	1.07	1.32		갈색	3.71		1.23	4.15	0.90	0.90
	와인색		3.07	1.40	2.32	1.31	-4.84***		와인색	3.00		1.29	2.44	1.28	1.28
	보라색		2.87	1.42	1.98	1.22	-5.98***		보라색	2.82		1.43	1.97	1.22	1.22
	녹색		2.23	1.21	1.69	1.04	-4.24***		녹색	2.13		1.21	1.49	0.92	0.92
	파랑색		2.43	1.26	1.82	1.13	-4.51***		파랑색	2.20		1.19	1.67	1.11	1.11
	노랑색		2.67	1.39	2.21	1.35	-3.01**		노랑색	2.49		1.32	1.74	1.16	1.16
	오렌지		2.72	1.28	2.44	1.33	-1.93		오렌지	2.64		1.37	2.21	1.27	1.27

* $p < .05$, ** $p < .01$, *** $p < .001$

(4.19)보다 더 높았다. 단발 직모, 긴 직모, 긴 웨이브는 낮게 평가되었으며, 남자대학생의 평가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가 더 낮았다. 이는 Pancer와 Meindle (1978)의 긴 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의 남자보다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여학생님답다’에 매우 짧은 커트를 제외한 짧은 커트, 긴직모, 단발 직모, 긴 웨이브, 업스타일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짧은 커트와 업스타일의 경우 여자대학생의 평가가 남자대학생의 평가보다 더 높았다. 이는 한명숙(2004)의 ‘여학생님답다’에서 연상되는 의

미로 ‘단정하다’, ‘지적이다’ 등을 나타낸 결과와 이 영미(1998)의 커트머리는 개성적인 이미지와 지적인 이미지에 긍정효과를 나타낸다고 한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Solomon과 Douglas(1985)는 직장 여성은 능력이 있다는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여성적인 이미지는 감춘다고 한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여선생님의 직업역할 수행에 적합한 두발 형태는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성일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여선생님 역할에 관용적 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피험자의 성별에 따라 고정관념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두발형태에 대한 여자대학생들의 고정관념이 남자대학생들의 고정관념보다 좀 더 확고하고 보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모발의 색상으로 ‘남학생답다’에 보라색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남자대학생의 평가(1.83)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1.49)가 더 낮았다. ‘여학생답다’에 검정색이 높게 평가되었고 남자대학생의 평가(3.96)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4.34)가 더 높았다. 보라색, 녹색, 파랑색, 노랑색의 평가는 낮았으며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가 더 낮았다. 이는 하주연(2002)의 연구에서 여고생들이 모발의 염색 색상으로 갈색, 오렌지색, 와인색, 노랑색 등을 선호한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선호하는 모발색상과 학생다운 역할을 나타내는 색상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선생님답다’에 갈색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으며, 남자대학생의 평가(3.40)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3.68)가 더 높았다. 와인색, 보라색, 녹색, 파랑색, 노랑색, 오렌지색의 평가는 낮았고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가 더 낮았다. ‘여선생님답다’에 검정색과 갈색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으며 남자대학생의 평가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가 더 높았다. 보라색, 녹색, 파랑색, 노랑색, 오렌지색의 평가는 낮았으며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가 더 낮았다.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피험자 모두 ‘남학생답다’와 ‘남선생님답다’에 검정색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검정색의 무겁고 완고한 이미지가 남성역할과 부합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모발색상에 대한 고정관념은 두발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좀 더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신발에 대한 학생과 선생님 역할 고정관념

신발에 대한 역할 고정관념의 차이를 t-검증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남학생답다’, ‘여학생답다’, ‘남선생님답다’, ‘여선생님답다’는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p < .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신발로 ‘남학생답다’에 피험자 모두 운동화를 높게 평가하였고, 옥스퍼드

<표 3> 신발에 대한 남·여 대학생의 역할 고정관념

고정관념	내용	모발 색상	남		여		t-value	고정관념	내용	모발 색상	남		여		t-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학생답다	남학생답다	운동화	3.90	1.13	4.16	0.90	2.24*	선생님답다	남선생님답다	운동화	2.91	1.29	2.47	1.06	-3.26***
		로퍼	2.04	1.03	2.81	1.35	5.65***			로퍼	1.84	1.00	2.52	1.32	5.11***
		펌프스	1.22	0.60	1.12	0.45	-1.63			펌프스	1.18	0.58	1.11	0.47	-1.23
		옥스퍼드	3.53	1.29	3.93	1.03	3.01**			옥스퍼드	3.93	1.26	4.44	0.85	4.24***
		샌들	1.50	0.95	1.87	1.15	3.12**			샌들	1.37	0.83	1.43	0.79	0.65
		부츠	1.66	0.97	1.84	0.90	1.70			부츠	1.63	1.00	1.61	0.86	-1.19
	여학생답다	운동화	2.57	1.05	3.26	1.16	5.58***		여선생님답다	운동화	1.86	1.00	1.72	0.85	-1.40
		로퍼	3.97	1.08	4.15	0.81	1.71			로퍼	3.85	1.15	3.79	1.10	-0.40
		펌프스	3.35	1.37	2.62	1.32	-4.78***			펌프스	4.57	0.72	4.73	0.56	2.20*
		옥스퍼드	2.48	1.29	2.80	1.25	2.22*			옥스퍼드	2.23	1.24	2.11	1.19	-0.89
		샌들	3.51	1.25	3.35	1.24	-1.13			샌들	3.91	1.19	3.72	1.10	-1.53
		부츠	2.48	1.33	2.37	1.20	-0.73			부츠	2.76	1.41	2.42	1.22	-2.29*

* $p < .05$, ** $p < .01$, *** $p < .001$

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으며 남자대학생의 평가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가 더 높았다. 로퍼와 샌들은 낮게 평가되었고 남자대학생의 평가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가 더 낮았다. ‘여학생답다’에 피험자 모두 로퍼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운동화의 경우 남자대학생은 비교적 낮게 평가(2.57)하였으나 여자대학생은 비교적 높게 평가(3.26)한 반면, 펌프스는 남자대학생이 비교적 높게 평가(3.35)하였고 여자대학생은 비교적 낮게 평가(2.62)하였다. 또한 옥스퍼드는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고, 남자대학생의 평가(2.48)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2.80)가 더 낮았다.

‘남선생님답다’에는 옥스퍼드가 높게 평가되었고 남자대학생의 평가(3.93)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4.44)가 더 높았다. 운동화와 로퍼는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는데, 운동화의 경우 남자대학생의 평가(2.91)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2.47)가 더 낮은 반면에, 로퍼는 남자대학생의 평가(1.84)가 여자대학생의 평가(2.52)보다 더 낮았다. ‘여선생님답다’에 펌프스가 높게 평가되었고 남자대학생의 평가(4.57)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4.73)가 더 높았다. 운동화와 부츠를 낮게 평가하였고, 부츠의 경우 남자대학생의 평가(2.76)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2.42)가 더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한명숙, 하희정, 2003)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옥스퍼드는 남자답고 펌프스와 샌들은 여자답다는 연구 결과보다 직업역할 고정관념이 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험자의 성별에 따라 고정관념이 차이가 나타났는데 신발에 대한 여성의 고정관념이 남성보다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즉, 여자대학생들은 남학생은 운동화, 여학생은 로퍼, 남선생님은 옥스퍼드, 여선생님은 펌프스가 각각의 역할 수행에 더 적합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裝身具에 대한 학생과 선생님 역할 고정관념

장신구에 대한 역할 고정관념의 차이를 t-검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남학생답다’, ‘여학생답다’, ‘남선생님답다’, ‘여선생님답다’는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p < .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장신구로 ‘남학생답다’에 피험자 모두 넥타이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귀걸이, 머리띠, 머플러는 낮게 평가되었으며 남자대

학생의 평가가 여자대학생의 평가보다 더 낮았다. 안경은 남자대학생이 중간정도의 평가(3.06)를 하였고 여자대학생은 비교적 높게 평가(3.52)하였다. ‘여학생답다’에 피험자 모두 머리핀과 머리띠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반지와 귀걸이는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으며 남자대학생의 평가가 여자대학생의 평가보다 좀 더 높았다. 선글라스와 스카프는 남자대학생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였고 여자대학생은 낮은 평가를 하였다.

‘남선생님답다’에 넥타이는 높게 평가되었으며 남자대학생의 평가(4.12)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4.57)가 더 높았다. 안경은 남자대학생이 중간정도의 평가(3.05)를 하였고 여자대학생은 비교적 높게 평가(3.65)하였다. 머리핀과 머플러는 낮게 평가되었는데 머리핀의 경우, 남자대학생의 평가(1.34)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1.11)가 더 낮았고, 머플러는 남자대학생의 평가(2.13)가 여자대학생의 평가(2.59)보다 더 낮았다. ‘여선생님답다’에 피험자 모두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머리핀, 스카프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으며, 귀걸이, 머리핀, 스카프의 경우 남자대학생의 평가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가 더 높았다. 안경은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는데 남자대학생의 평가(3.27)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3.55)가 더 높았다. 넥타이는 낮게 평가되었으며 남자대학생의 평가(2.39)보다 여자대학생의 평가(2.10)가 더 낮았다.

이와 같이 남학생과 남선생님 역할에 대한 장신구 고정관념이 보다 제한적이었다. 피험자들은 넥타이와 안경을 제외한 장신구는 남학생과 남선생님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성 직업역할에 대한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한정된 일련의 기대가 보다 규범적이며 명백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Craik(1993/2002)의 남성의 대부분은 과장된 장식에 의해 전달되는 걸치레가 심한 복장을 혐오하여 간단하고 절제된 의복을 선택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와 Popenoe(1977)의 남성 역할은 여성보다 더 좁게 제한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性이라도 피험자 모두 여학생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보다는 여선생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Craik(1993/2002)의 전문직 여성의 업무 복장은 여성스러움을 배제하지도 과장하지도 않는다고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 장신구에 대한 남·여 대학생의 역할 고정관념

고정관념	내용	모발 색상	남		여		t-value	고정관념	내용	모발 색상	남		여		t-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학생 답다	남 학생 답다	목걸이	2.06	1.30	2.07	1.29	0.07	선 생 님 답 다	목걸이	1.95	1.20	1.75	1.12	-1.53	
		반지	2.61	1.42	2.76	1.29	0.95		반지	2.97	1.39	3.25	1.34	1.78	
		귀걸이	2.17	1.25	2.50	1.26	2.32*		귀걸이	1.80	1.11	1.71	1.05	-0.77	
		팔찌	2.19	1.29	2.45	1.29	1.89		팔찌	2.14	1.31	2.19	1.24	0.38	
		안경	3.06	1.10	3.52	0.96	3.96***		안경	3.05	1.10	3.65	1.00	5.04***	
		선글라스	2.91	1.30	2.75	1.14	-1.10		선글라스	3.02	1.24	2.81	1.23	-1.50	
		머리핀	1.37	0.76	1.23	0.63	-1.79		머리핀	1.34	0.74	1.11	0.39	-3.28***	
		머리띠	1.39	0.86	1.64	1.02	2.22*		머리띠	1.25	0.67	1.17	0.51	-1.18	
		넥타이	3.85	1.08	4.06	1.13	1.70		넥타이	4.12	1.19	4.57	0.96	3.71***	
	여 학생 답다	스카프	1.53	0.90	1.60	0.85	0.69	스카프	1.54	1.02	1.62	0.92	0.69		
		머플러	2.41	1.32	2.83	1.34	2.77**	머플러	2.13	1.20	2.59	1.30	3.20***		
		목걸이	3.39	1.35	3.14	1.30	-1.65	목걸이	4.16	0.90	4.34	0.80	1.84		
		반지	3.46	1.33	3.13	1.35	-2.15*	반지	4.26	0.94	4.37	0.86	1.14		
		귀걸이	3.46	1.33	3.13	1.28	-2.24*	귀걸이	4.08	1.03	4.32	0.84	2.26*		
		팔찌	3.52	1.30	3.30	1.31	-1.52	팔찌	4.17	0.98	4.05	1.00	-1.11		
		안경	3.15	1.17	3.38	1.00	1.83	안경	3.27	1.16	3.55	0.95	2.30*		
		선글라스	3.13	1.21	2.72	1.19	-3.04**	선글라스	3.11	1.14	2.87	1.19	-1.79		
		머리핀	4.37	0.89	4.52	0.77	1.64	머리핀	4.16	0.99	4.43	0.77	2.69**		
머리띠	4.47	0.72	4.55	0.73	1.02	머리띠	3.82	1.13	3.83	1.10	0.11				
넥타이	2.44	1.13	2.70	1.16	1.94	넥타이	2.39	1.18	2.10	1.05	-2.23*				
스카프	3.23	1.31	2.72	1.11	-3.75***	스카프	4.23	0.98	4.44	0.80	2.09*				
머플러	3.43	1.19	3.59	1.16	1.18	머플러	3.95	0.92	3.99	0.91	0.34				

* $p<.05$, ** $p<.01$, *** $p<.001$

V. 결 론

본 연구는 서울·경기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남·여 대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학생역할과 선생님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두발, 신발, 장신구의 세부적 단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답다’라는 언어적 요소를 활용하여 규명하고자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두발 형태로 피험자 모두 ‘남학생답다’와 ‘남선생님답다’에 매우 짧은 커트를 높게 평가하였고, ‘여학생답다’에 단발 직모와 긴 직모를 높게 평가하였다. ‘여선생님답다’에 매우 짧은 커트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짧은 커트, 단발 직모, 긴 직모, 긴 웨이브, 업스타일은 높게 평가하였다.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모발색상으로는 피험자 모두 ‘남학생답다’와 ‘남선생님답다’에 검

정색을 높게 평가하였고, ‘여학생답다’와 ‘여선생님답다’에는 검정색과 갈색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신발로 피험자 모두 ‘남학생답다’에 운동화를 높게 평가하였고, ‘여학생답다’에는 로퍼를 높게 평가하였다. ‘남선생님답다’에 옥스퍼드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여선생님답다’에 펌프스를 높게 평가하였다.

셋째,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장신구로 피험자 모두 ‘남학생답다’와 ‘남선생님답다’에 넥타이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고, ‘여학생답다’에는 머리핀과 머리띠를 높게 평가하였다. ‘여선생님답다’에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머리핀, 스카프, 머플러를 높게 평가하였다.

넷째, 두발, 신발, 장신구에 대한 남·여 대학생 집단간의 고정관념의 차이는 여자대학생이 남자 대학생 보다 좀 더 제한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패션에 민감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할 상징을 나타내는 두발과 장신구에 대해 보다 세부적이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학생답다’와 ‘선생님답다’의 역할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의 차이는 피험자 모두 ‘여학생답다’와 ‘여선생님답다’ 보다는 ‘남학생답다’와 ‘남선생님답다’에 성특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같은 성 ‘이라도 ‘여학생답다’ 보다는 ‘여선생님답다’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같은 직업 역할이라도 남성 역할이 여성역할보다 비교적 전통적이고 규범적이며, 한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좀 더 어린나이에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자라기 때문이며, 두발, 신발, 장신구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여성역할보다 남성역할에 더 한정적이고 규범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여 대학생의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관념에 대한 평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답다’에 대한 긍정적 효과의 많은 비중은 적절한 것인가 부적절한 것인가에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사회적 고정관념을 반영한 두발 및 장신구의 적절한 착용이 필요하다. 특히 상황에 적절하고 피험자가 지각하고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의복과 함께 두발, 신발, 장신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한다면, 학생과 선생님의 호오적 차원과 평가적 차원을 높일 수 있으며,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고, 구축된 신뢰감 위에 효율적인 학습효과 및 더욱 만족스럽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하는 데 있어 남·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학과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두발, 신발, 장신구의 자극물 선정에 있어 한정된 수를 제시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정된 두발, 신발, 장신구는 의복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의복을 제외시켰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의복과 두발, 신발, 장신구의 자극물을 선정할 후, 조합을 달리하여 측정한다면, 고정관념을 지닌 자극물의 특성을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지경. (2002). 성차별 경험이 여성의 사회적 정체감에 미

- 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희. (2000). 헤어스타일 모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TV 드라마 텔런트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자. (1993). 인간성 회복을 위한 21세기 ‘의생활문화’. *삼성문화*, 18, 22-25.
 김양휴. (1995). 패션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희숙. (1993). 20세기 서구 여성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도주연. (1990).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선헌. (2002).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종렬. (1989). *학교경영론*. 성원사.
 유은희. (2001). 여군의 지각된 직무특성과 직무 만족에 관한 상관 연구: 성역할(Sex role) 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현주, 임명주, 황영미. (2001). *토틸 컬러 코디네이션*. 일진사.
 이경순, 김희섭. (1998).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교문사.
 이영미. (1998).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인혜. (1997). *정신생리학*. 학지사.
 이진환. (1986). 고정관념 수경에서의 내·외집단 특성 대비 지각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대응 외. (1994). *디자인대사전*. 서울: 승례문.
 정진경. (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3, 132-135.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5, 82-92.
 컬러 코디네이션. (2001). 라사라 교육 개발원, 라사라 패션 정보.
 패션전문 자료사전. (1997). 한국사전 연구사.
 하주연. (2002). 여고생의 감각추구 성향과 신체 이미지에 따른 의복 행동 및 헤어스타일 선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명숙. (2003). 「~답다」에 내재된 한국 복식 문화의 속성·의복에 표현된 성역할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1), 88-102.
 한명숙, 하희정. (2003). 남·여 대학생의 「~답다」에 대한 성역할 지각에 관한 연구 -두발, 신발, 장신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5).
 한명숙. (2004). 직업 역할에 따른 의복의 고정관념 연구 -선생님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5), 591-602.
 Arnheim, Rudolf. (1989).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서울: 기린원.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 (1977).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96-205.
- Broverman, J. K. & Vogel, S. R. (1972). Sex 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 28, 59-78.
- Cash, T. F. (1985). *The Impact of Grooming Style on the Evaluation of Women in Management*, Solomon(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Books.
- Craik, Jennifer. (1993). *패션의 얼굴*. 정인희 외 역(2002). 푸른솔.
- Feldon, Leah. (2003). *Does this make me look fat?*. Villard Books.
- Hoffman, C. & Hurst, N. (1990). Gender stereotypes: Perception or ratio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97-208.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Pancer, S. M. & Meindle, J. R.(1978). Length of hair and beardedness as determinant of personality impress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6, 1328-1330
- Popenoe, D. (1977). *Sociology*(3rd ed.).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Rawson, Philip. (1984). *Ceramic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olomon, M. R. & Douglas, S. P. (1985). *The female clothes horse: from aesthetics to tactics*. In M. R. Solomon(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